



2019 년 2 월

친애하는 께,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강도 피해자를 만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의 이웃인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던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는 노숙자처럼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 갓난아기를 혼자 기르는 젊은 엄마, 혹은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 눈에 잘 띄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7년이 되는 토론토 대교구 역사는 이 비유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펼쳐가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훌륭한 예가 웨어라이프를 위한 우리의 지원입니다.

웨어라이프는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들이 하는 일들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립 포커크 대주교님께서 1976년에 설립하셨습니다. 현재 40개가 넘는 기관들이 우리의 연례 기금 모금의 혜택을 받아서,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극박한 처지에 있는 가족, 전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연로하신 분들,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해 이민자와 난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사회 정의 프로젝트 지원, 개발도상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미래에 본당에서 사목할 사제와 부제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웨어라이프는 기금 조성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손길을 전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웨어라이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교구 본당 캠페인 목표액 1,380만 달러를 달성하는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약 없이 찾을 수 있는 워크 인 상담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립된 노인들이 잊혀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다른 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복음을 실천하는” 웨어라이프의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물을 목상하며, 저와 같이 웨어라이프에 최선으로 기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Thomas Card. Collins

토마스 콜린스
토론토 대주교

Office of the Cardinal 1155 Yonge Street, Toronto, Ontario M4T 1W2